

# 이철우 “영남 번영·발전 위한 지방정부 구성 힘 모아야”

(경북도지사)

## 영남미래포럼·미래발전협의회

현안 토론, 상생 번영 협약서 체결  
“절박함에서 대구경북 통합 추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용역 의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영남 미래포럼’과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영남권 5개 시도지사 모임)에 참석해 영남권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김사열 대통령소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좌장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이 지사는 통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70년대의 서울 로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인구와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지방은 소



20일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 참석한 5개 시도 시장 및 지사 기념 촬영.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라고 주장하고 “절박함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광 등 기능을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중이다”라며 통합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영남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언했다.

원전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올 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한파로 인한 전력공급 우려가 다시 이번 여름 최악의 폭염 예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만약 당초 계획대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했다면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운영허가가 난 것은 다행이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원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청정 및 수소에너지, 미래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그린경제 대전환을 선언하고 실천 중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4차 산업시대의 전력수요와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이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하여 “인구정책은 지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지난해부터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고, 매년

지방의 청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인구정책의 한계와 전환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최된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 ▲그린&디지털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선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대구경북신공공의 조속한 건설과 국가차원의 지원 등 5개항의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은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GAD) 통해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김규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 LGU+, 여수석화단지 5G ‘스마트산단’ 구축

전남도-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MOU  
지능형 배전반 진단 등 시로 사고 예방

LG유플러스가 전남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5G MEC 기반 ‘스마트산단’을 구축한다.

LG유플러스는 전남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LG유플러스는 전남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한다.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MEC 기술도 활용한다.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는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 현장에 가깝게 배치하고, 5G의 초저지연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도입된 ‘스마트산단’은 5G 네트워크를 통해 넓고 복잡한 석유화학 산업단지 현장을 관리하고 인공지능(AI)로 사고를 예방한다. MEC는 데이터 전송과 분석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빠른 대응을 돕는다.



박진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왼쪽부터), 손재형 전라남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 서재용 LG유플러스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이 20일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사업 협약’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구체적으로 ▲현장의 온·습도를 분석해 배전반 화재와 전력차단 사고를 사전에 진단하는 ‘지능형 배전반 진단’ ▲체온과 뇌파,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해 작업자의 인명사고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생체신호 분석 안전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배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 데이터의 유출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형 클라우드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은 게 특징

이다. 서재용 LG유플러스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은 “스마트산단 구축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안전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 스마트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설비관리 데이터는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전라남도 빅데이터 허브’에 전달된다. 전남도청은 향후 해당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순복 기자 sunbok@

## “전남 브랜드관 추가개설... 세계 수출 지원”

### 전남도, 아마존 입점기업 간담회

성과, 개선방안, 향후 마케팅 논의

전라남도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지방정부로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7월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 1년 만에 262만 달러 수출을 달성한 것을 기반으로, 영국과 EU, 캐나다 등 전 세계 온라인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위탁 운영하는 크리에이티브(대표 선장)를 초청, 지난 18일까지 3일간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활성화를 위한 입점 기업 간담회를 했다.

선장 대표 일행은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 올해 새롭게 전략품목으로 입점할 예정인 담양 세아푸드의 고춧가루, 곡성 석곡농협이 백세미, 완도 세계로수산의 모듬해초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디자인 컨설팅을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입

소문이 난 김치를 아마존에 입점시키기 위해 김치 생산기업을 방문하고, 두부스낵과 동결건조 가공식품 제조기업 관계자를 만나 아마존 입점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아마존 전략품목으로 선정돼 브랜드관에서 판매 중인 고흥유자, 해남고구마, 광양매실, 완도전복, 여수건어물, 신안유기농김, 순천장류 등 7개 가공식품 생산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방안은 물론 향후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방안을 논의했다.

선양구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이 전남 수출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안테나숍 기능을 할 것”이라며 “지난 15일 독일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15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아마존에 브랜드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전 세계 주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전진기지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영풍, ‘석포제련소 ECO 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상 배유미, 무방류 공정 수채화 표현

영풍은 석포제련소 무방류시스템을 주제로 한 수상작을 선정해 상급과 수 상증명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배유미씨의 ‘낙동강 수질오염 제로! 무방류공정으로 시작합니다’가 차지했다. 담백한 색채로 무방류시스템과 오염지하수 차집시설을 수채화

로 그리는 과정을 통해 환경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석포제련소의 노력을 형상화했다.

최우수상은 김정훈 신종현 노효준씨가 공동제작한 ‘무방류공정이란 무엇일까’가 수상했다. 무방류공정의 의미와 기술적 요소에 대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수상작은 영풍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포스트 채널

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세계 제련소 최초로 도입한 증발농축형 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 사용된 물(폐수)을 증발시킨 뒤 깨끗한 물로 포집해 다시 공정에 재사용하고, 찌꺼기는 폐기물 처리하는 설비다. 이번 공모전은 석포제련소 무방류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환경보전과 수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월부터 3개월여간 진행돼 총 1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양성운 기자 ysw@

단맛 강하고 찹기 좋은 기능성 품종

전남 함평군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블랙베리 옥수수’가 지난 16일부터 본격 출하됐다.

‘블랙베리 옥수수’는 잎과 속까지 자색이며 단맛이 강하고 찹기가 좋은 기능성 품종으로 출시 이후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주 단위로 수확하는 작부 체계를 구축해 로컬푸드직매장, 현대백화점 등에 지속 판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 둔화와 가격하락 등 어려운



군 관계자들이 블랙베리 옥수수 출하를 알리고 있다. /함평군

농업 여건에 대응해 농업인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최근 농산물 트렌드에 부합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전남)=김태수 기자 ts7080@